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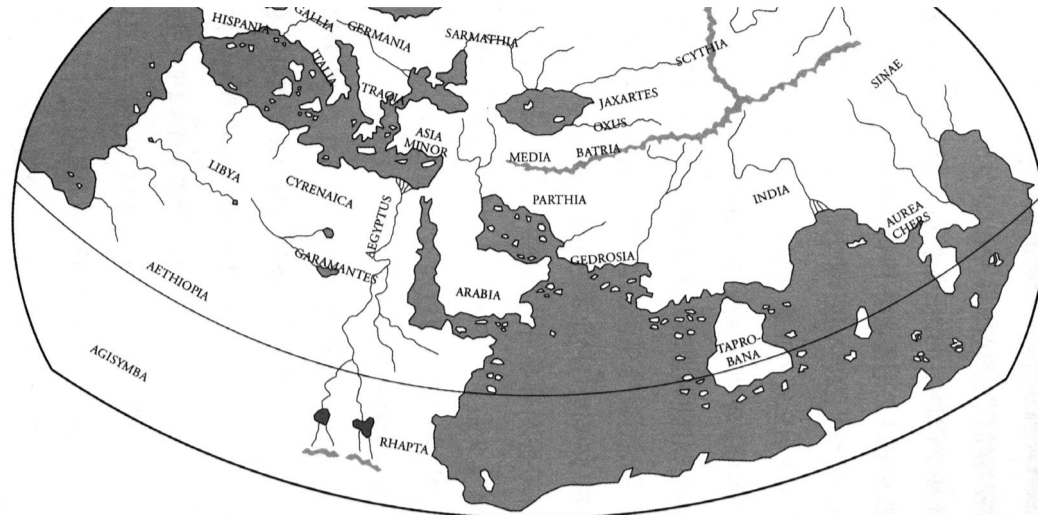
삶과 생각·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권의 책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

대니얼 스미스 지음, 임지연 옮김

‘길가메시 서사시’, ‘도덕경’, ‘이슬 우화’, ‘손자병법’, ‘논어’, ‘국가론’, ‘지리학집성’, ‘직지심체요절’, ‘종의 기원’...

이들 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이다. 책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다. 데카르트의 “독서는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과 나누는 대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책은 대화를 매개하는 유효한 사물이다.



‘지리학 집성’에 수록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지리학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크레타 제공)

기원전 3000년경에 나온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왕 길가메시의 모험담을 담은 장편 서사시다. “문학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최초의 위대한 도약이자, 상상력과 독창성이 빛나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이 작품은 고전 영웅 서사시의 주요 소재가 되는 여러 비유가 내포돼 있으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원형으로 평가된다. 노자의 ‘도덕경’은 고대 중국 도가 철학의 핵심 경전이다. 80여 장, 한자 5000여 자로 이루어진 서적으로 핵심사상은 인자함, 겸손함, 천하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요약된다. 도를 매개로 ‘빛과 어둠, 불과 물, 작위와 무의 같은 서로 반대되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상징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하며 무엇이 정의인지 묻는다. 플라톤은 ‘이데아적 형상’의 개념을 토대로 실제의 본질을 탐색한다. 2001년 ‘철학자 잡지’에서 1000명이 넘는 철학자와 연구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에서 역대 최고 철학서로 꼽혔다. 우리나라 백운화상이 엮은 ‘직지심체요절’은 불교 고승들의 서, 법어, 설법 등을 담고 있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78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수 백인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를 위해 투쟁한 인물이다. 그의 회고록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은 “연민, 공감, 타협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책의 면면을 속고하다 보면 칼 세이건의 명언이 환기된다. “책은 시간의 족쇄를 끊는다. 책은 인간이 마법을 행할 수 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이 새삼 깊이 다가온다. (크레타·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누구도 울지 않는 밤=황순원신진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문단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김이철 작가의 소설집. “정말 쓰고 싶은 소설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울지 않는 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 데서 보듯 작가는 공동에 그늘에 놓인 여성들의 문제를 주목한다. 모두 10편의 소설이 수록된 작품집은 다양한 연령층의 화자를 배치해 사회적 문제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같이 가면 길이 된다=일과 일터와 일하는 사람을 모티브로 일하는 삶과 회복하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정책국장으로 일하는 저자는 여러 지면에 꾸준히 발표해온 글들을 한데 엮었다. ‘당당한 노동’은 누군가에게는 현실로 그려나 수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꿈으로 남은 상황에서 저자는 2007년 말 세계 금융위기를 회상하며 지금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는다. (생각의 힘·1만8000원)

주하던 사람이 자기가 오래전 떠나는 길의 출발점으로 돌아와 걷는 것처럼 정직하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거침없이 내성적인=지난 2019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 시집으로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시 세계를 보여준다. 축구장을 비롯해 영화관, 이발소와 같은 생활 속에서 튀어나온 화자 역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신이 하던 일을 이어간다. 따로 부를 나누지 않고 이어지는 40편의 작품은 오랫동안 질

▲이교도 미술=세계 각지의 이교도들의 철학과 신념을 살펴보고 ‘이교’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안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술적 관심은 과거의 태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특히 17, 18세기에 사회적 엘리트들이 그리스·로마 신화를 교양으로 이용하면서 기독교 이전의 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미술문화·3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할아버지의 양손=책의 저자가 직접 겪은 실화를 모티브로 엮은 피난길 이야기. 유명한 화가였던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피해 피란길에 오를 저자네 가족은 평양, 개성, 서울, 부산으로 내려가며 큰 고통을 당한다. 후일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내 삶의 나이로 겪은 비극은 휴전 70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전쟁의 잔혹함과 더불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상수리·1만9500원)

들은 무슨 놀이를 즐겼는지 깨닫게 해준다. 재미있는 그림과 다양한 유적, 유물 사진을 풍부하게 배치해 고대 이집트를 눈으로 보고 느끼며 역사적 흐름과 일상생활을 두루 알 수 있다. (폴빛·1만3000원)

▲파라오의 뇌를 깨웠다?=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놀랍고 신기한 일을 키워드로 알아보며 세계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대 이집트는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했는지, 사람

▲나, 언니 안 할래!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엄마는 나코와 오빠에게 내일부터 엄마 친구 딸인 가나가 집에 와서 머문다고 말한다. 가나는 나코보다 두 살 어린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 동생하고 놀아본 적 없는 나코는 동생의 존재가 어색하면서도 ‘언니’라는 말에 설렌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비뚤어지는데... (주니어김영사·1만3000원)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 74가지 꽃과 나무 이야기

꽃의 계절·나무의 자리

에마누엘 케시르-르프티 지음, 권지현 옮김

늘 곁에 두고 싶은 아름다운 책이다. 길에서 만나는 꽃과 나무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자라면 더없이 좋은 책이다.

책에 소개된 봄꽃 가운데 ‘튤립’을 찾아본다. 백합과에 개화기는 3-5월, 높이는 28-75cm인 튤립의 꽃잎이 ‘터번’을 뜻하는 터키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알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다. 튤립은 사랑을 고백하는 꽃이지만 노란색 튤립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뜻한다. “팬싱 것처럼 날렵한 줄기를 가진 튤립은 ‘처음에는



단단한 꽃눈에 갇혀 있다가 조금씩 꽃이 피어나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무용수처럼 꽃잎을 활짝 피운 뒤에 삶을 마친다.”

무엇보다 세로로 긴 책 판형에, 세밀화가 주로 실린 일반 식물도감과 달리 마치 마티스를 연상시키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의 계절-사계절 피어나는 37송이 꽃을 읽는 시간’과 ‘나무의 자리-그곳에 머무는 37그루 나무를 읽는 시간’은 한층 가까이에서 자연의 황홀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책으로 150여컷의 일러스트가 함께 실렸다.

‘눈으로 보고, 이름으로 알고, 마음으로 새기는 자연 이야기’를 모토로 출판사 지노가 선보이는 ‘가까이 자연도감’ 시리즈의 출발을 알리는 책으로 ‘새의 노래-우리가 몰랐던 37마리 새를 읽는 시간’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두 책은 에마누엘 케시르-르프티가 글을 쓰고 레이 모프티가 그림을 그렸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시적인 글과 유용한 정보, 독특한 삽화로 표현한 책이다. 마치 누군가에

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어체로 쓰인 책은 친근하게 다가온다.

‘꽃의 계절’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나눠 꽃을 소개한다. 물망초·복련·벚나무·라일락·작약·라넨큘러스·은방울꽃(봄), 수레국화·패랭이꽃·장미·백합·해바라기·스위트피(여름), 아네모네·국화·시클라멘·달리아·가드니아(가을), 동백나무·팬지·수선화·미모사야카시아(겨울) 등을 만날 수 있다.

‘나무의 자리’는 ‘들맹과 숲 (자작나무·수양버들·유럽사시나무·사과나무 등), ‘도시와 정원 (마로니에·회화나무·플라타너스 등), ‘황무지 (무화과 나무·사이프러스·올리브나무 등), ‘산 (독일가문비나무·잎갈나무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다양한 나무를 소개한다.

책에는 꽃과 나무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원산지과 색깔, 모양, 향기 등의 과학적 지식과 함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교양적 지식까지 풍부하고 담겼다.

책 말미에는 꽃과 나무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노·각 권 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금남새마을금고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 062-223-8007